

광주시, 협약 변경 1천억 아꼴다더니 맥쿼리에 지난해 혈세 32억원 더줬다

“1014억 절감” 주장했지만 법인세 증가로 예측치 달라져
제대로 협상 했는지 변경협약 체결 과정·내용 수사 필요

민선 6기 광주시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이하 맥쿼리)와 변경협약을 체결한 뒤 2018년 재정지원금이 오히려 32억여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3년간은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면서 19억여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1014억원을 절감했다는 변경협약의 성과가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가상승률, 통행량 증가분 등을 예측해 절감 규모를 추정했으나, 실제 매년 지급 금액은 추정치를 벗어나고 있어 광주시가 제대로 협상에 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협약 변경 과정과 내용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맥쿼리가 100%

투자한 (주)광주순환도로투자에 지난 2018년 264억5400만원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했다. 협약 변경 전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을 적용했다면 232억3600만원을 줘야 하는데, 협약 변경 이후 오히려 32억18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시가 지난해 광주일보에 건넨 ‘협약 변경 전후 재정지원금 비교’ 자료에서는 2018년 35억6300만원을 절감한다고 적혀있다. 따라서 2028년까지 맥쿼리와 협약 변경으로 재정지원금 1014억원을 줄였다는 민선 6기의 발표가 신빙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시는 협약 변경으로 시가 납입해야 하는 법인세가 예측치 28억원과는 달리 112억

원이 청구돼 절감 규모 추정치가 바뀌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상하지 못했던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미지급 재정지원금 851억원에 대한 법인세를 시가 내줬다는 것이다. 시는 기존 자료에서 2028년까지 매년 법인세 추정치를 30억~35억원으로 설정해뒀다. 자연히 협약 변경에 따른 절감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시는 2016년 재정지원금이 42억9500만원 증가하고, 2017년 55억6200만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8년 다시 32억1800만원이 증가하면서 3년간 협약 변경으로 인해 19억5100만원의 혈세가 투입된 셈이다.
민선 6기 광주시는 1심과 2심에서 승소·일부 승소하고도 소를 취하하고, 자본구조 원상 회복 감독명령을 취소하면서 맥쿼리와 협상 변경에 나서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을 대안적 비용보전방식

(MCC)으로 바꿨다. 이 과정에 윤장현 전 시장의 측근 인사, 맥쿼리 측 자본구조조정 전문가들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윤 전 시장의 측근 인사가 속한 한 단체는 현재까지도 맥쿼리 자회사인 (주)광주순환도로투자와 ‘통합관리 선정업체 지위 확인’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재정지원금이 증가했지만 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억원 이상의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협약 변경이며, 그 실제에 대해 수사가관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시민을 속이고 우롱한 것이며, 협약 변경에 어떠한 세력이 개입하고 본질을 흐려냈는지에 대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봄인줄 알았네...” 매화의 착각



광주지역 낮 최고기온이 8도를 웃도는 등 겨울임에도 쾌청한 날씨를 보인 22일 광주 서구 농성동 상록도서관 앞 길가에 하얀 매화꽃이 만개해 계절을 무색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예타 면제 기대

목포 온 이낙연 총리 “긍정 논의”

민선 7기 전남도 핵심 프로젝트인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예타 기준에서 지역 낙후도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어 경전선 전철화 사업도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낙연 총리

식이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선정될 것임을 내비쳤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도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총리는 “타당성조사 기준에서 ‘지역이 얼마나 낙후한가’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자 한다”며 “경전선 전철화는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하는데 잘 준비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에너지밸리 특성화는 산업부와 한전 사이에 조정하고 있다”며 “한전공대 부지는 28일 차질없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목포 대양산업단지 방문한 자리에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되고 있어서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목포서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 공방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등 의혹 공방이 대상지역이었던 목포로 장소를 옮겨 벌어지게 됐다. <관련기사 4면>
자유한국당은 22일 손 의원 투기 의혹의 실상을 파헤치기 위해 의혹의 중심지인 목포를 찾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은 이날 오후 목포를 찾아 목포시로부터 손 의원 의혹 관련 현장보고를 들었다. 또한 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와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에 맞서 손 의원은 23일에 목포 구도심 나전철기박물관 건립 예정 부지에서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손 의원은 이날

알림 자료를 통해 “23일 오후 2시 목포 구도심의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1시간 동안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간담회 장소는 기자들에게만 오후 1시부터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포 현지에서 열리는 이번 기자간담회는 지난 20일 민주당 탈당을 위한 기자회견에 이어 사흘만이다. 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둘러싼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향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손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 나 원내대표를 겨냥, “곧 반전의 바카드가 폭로된다”며 “방송 한번 같이 했던 정으로 충고한다. 부디 뒷전으로 한발 물러나 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취소해야 ▶6면
KIA 양현종 “성직으로 말하겠다” ▶20면



광주일보 뉴스
NAVER
포스트에서 보세요

한전공대 후보지 오늘 프레젠테이션 ... 심사 본격화

한전공대 후보지에 대한 심사가 23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22일 한전과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한전공대 부지선정 심사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의 한전공대 용역사 ‘A.T. Kearney’ (A.T커니) 사무실에서 후보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한 다. 앞서 심사위원회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3곳씩 제출한 6개 후보지에 대한 서류 검토를 마쳤다. 이어 24일 오전에는 광주 남구 대촌동 도시첨단산단 등 남

구 2곳, 북구 오룡동 첨단산단 3단지 등 광주시 추천 부지 3곳, 오후에는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등 전남도 추천 부지 3곳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위는 PT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광주와 전남에서 각 1곳을 선정한 뒤 2차 최종 평가를 거쳐 2곳 중 1곳을 부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부지 발표는 28일 오전 서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2019 땅끝해남 설맞이 선물특선

설 선물은 해남미소에서

육지의 끝, 그래서 깨끗합니다.
바다의 시작, 그래서 신선합니다

해남미소 설맞이 경품이벤트 2019. 1. 9 - 1. 31 (23일간)
※ 설맞이 경품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를 해주세요

해남군 직영 농수산물 종합쇼핑몰
해남미소
080-859-1100
www.hnmiso.com

해남군